

‘천국 각 공동체도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천국 각 공동체도
한 사람 모습이다
(*Each Society in Heaven
Reflects a Single Man*)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17:22)

지난주, 스베덴보리 저, ‘천국과 지옥’(*Heaven and Its Wonders and Hell*) 8장, ‘천국 전체는 한 사람 모습이다’(*All Heaven in the Aggregate Reflects a Single Man*)에 이어 오늘은 9장, ‘천국 각 공동체도 한 사람 모습이다’(*Each Society in Heaven Reflects a Single Man*)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이 아케이나, 곧 주님이 그동안 감추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환히 보이시는 계시인 이 아케이나가 밝히 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도록, 우리 영과 육(靈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합니다.

68 저는 주님의 허락으로 천국 각 공동체는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며, 사람 모양(*the likeness of a man*)임을 자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빛의 천사로 위장하는 법을 아는 몇몇이 슬그머니 자신들을 밀어 넣는 어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선의 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에게서 분리되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먼저 그 공동체 전체가 어렵듯하게 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더니 점점 사람 형태로, 그러나 여전히 어렵듯하다가 이윽고 마침내 아주 또렷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들은 그 공동체의 선(善, *good*) 안에 있었던 그런 구성원들이었던 반면, 그 ‘사람’ 안에 있지도, 그 ‘사람’을 구성하지도 않았던 자들은 위선의 영들이었으므로, 그래서 이들은 내쳐졌고, 그 공동체는 그 전 상태로 회복되었으며, 이렇게 해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요17:22, HH.68-72

‘천국 각 공동체도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위선자들은 말도 잘하고 행동도 괜찮지만 모든 걸 자신들을 위해서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천국, 사랑, 그리고 천국의 삶에 대해 마치 천사들처럼 말하며, 또 바르게 행동합니다. 자기들이 고백하는 그런 무엇처럼 보이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무 것도 믿지 않으며, 자기들 말고는 누가 잘 되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그저 자신(*self*)을 위한 것이거나, 설령 타인을 위한 것이어도 그건 겉보기에만 그럴 뿐, 사실은 여전히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 ‘천국 전체가 사람 모습이며, 천국을 구성하는 각 공동체 역시 사람 모습이다’라는, 선뜻 와닿지도, 그리고 일상생활에 별 도움도, 모른다고 무슨 영향도 없을 것 같은, 좀 뜬금없어 보이는 주제에 왜 이렇게 여러 주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실이 바로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며, 주님 자신 오직 유일하신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신앙고백, 사랑 등도 바로 이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거나 여기에 기초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일순간

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아생전 이런 걸 모르고 살다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시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선 안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은 어렴풋이라도 이 사실을 직각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후 영들의 세계에서 천사들로부터 천국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시면서 쉽게, 그리고 기쁘게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십니다.

69 저는 또 주님의 허락으로 주님이 어느 천사 공동체에 눈에 보이게 임하실 때, 그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 모습(*a one in the human form*)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높이 동쪽을 향해 뭔가 구름 같은 것이 나타나 하얗게 빛나다가 붉게 변하며, 주변에 작은 별들과 함께 내려오면서 점점 환해지더니, 마침내 완벽한 사람 형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주위 작은 별들은 천사들이었는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 앞서 52번 글에서 나눈 내용을 잠시 인용합니다.

‘천국 각 공동체도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이 사실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천국 전체를 마치 하나의 천사에게 하듯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각 공동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종종 하나의 천사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천사처럼 천사 형태를 띠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본 적이 있습니다. 더욱, 주님이 천사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은 많은 천사에게 둘러싸인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치 한 천사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주님을 일컬어 ‘한 천사’라 하는 이유이며, 하나의 공동체 전체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라파엘’ 등은 그들의 맡은 일에 따라 그렇게 이름 붙여진 천사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70 천국 어느 공동체 내 모든 구성원이 모두 다 함께 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 보일지라도 어느 공동체든지 그 모습이 서로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 가족 식구들의 얼굴이 다 다르듯 공동체들도 다 다른데, 그 이유는, 앞서(HH.47)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어떠함과

그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 선의 다양함(*the varieties of good*)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장 안쪽, 곧 가장 높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공동체들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람 모습입니다.

※ 47번 글입니다.

같은 공동체에 있는 천사들은 얼굴이 전체적으로는 서로 닮았지만 개별적으로는 다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닮았는데 개별적으로는 다른 이런 건 어느 정도는 이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든 인종마다 얼굴과 눈에 그 인종 특유의 어떤 일반적 특징들이 있으며, 그걸로 다른 여타 인종들과 구분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서로 다른 가정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사실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내면의 애정(愛情, *affection*)이 얼굴에 나타나고 환히 비치기 때문인데요, 천국에서 얼굴은 이런 애정들이 겉으로 드러나 그 속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울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고유한 애정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각 공동체도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또한 이 일반적인 생김새가 어떻게 해당 공동체 내 개별 생김새들로 변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이 하나 내게 나타나더니, 어떤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그 공동체에 속한 천사들 모두의 애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변형과정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는데 그때 저는 어떤 하나의 얼굴이 그 밑바탕에 있고, 거기서 나와 조금씩 다르게 생성된 나머지 모든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얼굴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의 애정들이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얼굴들 또한 프리젠테이션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의 얼굴은 그들의 내면의 모습, 형상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사랑과 신앙에 속한 애정의 모습, 형상이기도 합니다.

71 천국에서 어느 공동체의 구성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들이 모여 하나가 되면 될수록 그 공동체가 띠게 되는 사람 모습은 더욱더 완전하다는 사실은 언급하는 편이 더 좋겠다 싶은데요, 이는 앞서(HH.56) 다

룬 것처럼, 천국의 완전함은 천국 형태로 배치된 다양성에서 나오며, 다양성은 많은 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천국 모든 공동체마다 날마다 그 구성원 수가 증가하며, 그럴수록 각 공동체는 더욱 완전해집니다. 그렇게 각 공동체뿐 아니라 천국 전체도 더 완전해져 가는데요, 천국은 공동체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 구성원의 수적 증가로 완전해지기에,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가득 차 닫히게 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오류 가운데 있나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정반대로, 천국은 결코 닫히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더 가득가득해짐으로써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신입 천사가 자기들에게 오는 것만큼 더 간절히 바라는 게 없습니다.

※ 56번 글입니다.

거듭, 천국은 주님이 시인, 인정되시는 곳이며, 믿음과 사랑의 대상 되시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공동체의 서로 다른 선의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다양한 형태로 예배하는 것은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이롭습니다. 천국의 완벽함은 바로 이 다양함에서 오기 때문입

‘천국 각 공동체도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니다... 모든 완전체는 다양한 부분들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구성요소가 없는 완전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며, 그런 건 아무런 퀄리티도, 따라서 자연히 아무런 퀄리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완전체가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존재하며, 다양한 부분들이 하나의 완벽한 완전체를 이룰 때, 그리고 그 각각이 자기 자신을 마치 오랜 친구, 마음이 참 잘 맞는 친구처럼 서로에게 제공하여 계속 연결, 연결되면, 그런 완전체의 퀄리티는 그야말로 완벽, 완전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양한 부분들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하나의 완전체입니다. 천국의 형태야말로 모든 형태 중 가장 완벽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완벽함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모든 아름다움, 기분 좋음 및 기쁨의 본성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각과 마음은 이들 아름다움, 기분 좋음 및 기쁨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퀄리티들은, 서로 화합을 이루고 마음이 잘 맞는 많은 부분들의 음악회와 화음, 아니면 질서정연하게 공존하거나 이어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샘솟듯 솟아나 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많은 부분들 없이 어떤 전부나 완전체는 있

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다양해야 즐겁다, 다채로워야 기쁘다고들 하며, 알려진 대로, 다양함, 버라이어티의 어떠한 즐거움, 기쁨의 어떠한 결정을 합니다. 이로 미루어, 천국의 그 엄청난 버라이어티에서 오는 완벽함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거울 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모든 만물은 영계의 실상을 거울처럼 비추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거듭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등을 가리켜 천국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저런 입장들은 ‘획일’, ‘평등’, ‘차별(차이) 금지’ 등을 추구하기 때문인데, 우리 역시 목회자로서 혹시 교회를 획일화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건 아닌지,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훈, 가풍을 내세워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오는 하나 됨은 자발적인 반면, 지옥에서 오는 하나 됨은 강압적이기 때문입니다.

72 각 공동체는 그 전체가 하나로 나타날 때, 한 사람의 모습,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앞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천

‘천국 각 공동체도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국 전체가 그 모습이기 때문이며, 나아가 천국과 같은 가장 완전한 형태에서는 전체에 대한 부분들의, 그리고 가장 큰 것에 대한 그보다 작은 형태들의 일종의 유사성(*a likeness*, 닮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더 작은 형태들과 부분들은 천국을 구성하는 공동체들인데, 이 역시 보다 작은 형태의 천국들입니다. (HH.51-58) 이 유사성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요, 그 이유는 천국의 모든 선은 하나의 사랑, 곧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유일한 사랑, 곧 천국 모든 선의 기원이 되는 이 사랑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 사랑(*love to the Lord from the Lord*)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천국 전체가, 그보다 좀 덜 보편적으로는 각 공동체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개별 천사가 주님을 닮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며, 이는 앞서(HH.58) 보여드린 바와 같습니다.

※ 58번 글입니다.

끝으로, 자기 자신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신에 관한 가장 크거나 보편적인 것에게뿐 아니라, 가장 작거나 구체적인 것, 그래서 가장 미세한 것에게조차 가장 큰 천국의 형상이 반복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은,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고유한 사랑이며, 그 사랑은 그의 주된 사랑, 곧 그를 지배하는 사랑이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를 다스리는 이 사랑은 아주 작은 단위 안으로 흘러 들어가 그 안을 정돈, 배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곳을 자신과 닮은 꼴이 되게 합니다. 천국에서는 주님을 사랑함이 주된 사랑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보다 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십니다.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개별 단위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셔서 그들을 정돈하시고, 주님 자신으로 옷을 입히시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를 천국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천사로 하여금 가장 작은 형태의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이며, 한 공동체로 하여금 좀 더 큰 천국이, 그리고 모든 공동체로 하여금 가장 큰 형태의 천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 제가 여러 해 지금도 틈틈이 보고 있는 몇 안 되는 TV 프로 중에 채널A라는 방송사의 ‘나는 몸신이다’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는 사람의 몸과 관련된 거의 모든 걸 다루고 있는데요, 얼마 전 400회를 하

‘천국 각 공동체도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면서 정말이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단위 무슨 호르몬과 영양소들의 이름부터 걸 피부 마사지, 뷰티 및 음식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걸 다루고 있습니다. 덕분에 의료, 의학에 무척 문외한이었던 제가 이젠 나름 무슨 용어들이 예전처럼 아주 낯설지는 않게 되었지요. 요즘 몇 주 이 천국의 구조와 속성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몸신을 통해 알게 된 지식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아주 재미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몇몇 회차가 생각나는데요, 가령, 반사요법이라고, 사람의 귀나 발바닥, 등과 손바닥들이 사람 몸 전체를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어디를, 발바닥이나 손바닥, 등 어디를 어떻게 해서 속병을 고치거나 건강하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지요.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천국과 그 공동체가 사람 모습이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사람 몸의 신비에 대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부분을, 부분이 전체를 나타낸다, 가리킨다, 서로 닮았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제가 속한 충주봉쇄수도원 수

도학교 카톡 방에 올린 글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를 표현한 그림을 어느 분이 공유하셔서 그에 대한 댓글을 단 것입니다.

천국은 이곳 지상 자연계와 달리 시공간(視空間)이 없는, 상태와 그 변화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내면, 속 사람의 나라이므로 우리의 외면, 곧 겉 사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 무슨 말씀인가 참 알쏭달쏭한... 육(肉)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靈)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사실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과 지상은 서로 상응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차이로 인해 천국의 모든 것은 지상의 그 무엇으로 나타날 때, 시공간의 옷, 곧 무슨 외형을 입습니다. 그 반대, 곧 지상의 그 무엇은 천국의 그 무엇을 가리킬 때는 지상에서 입었던 외형을 벗게 되지요!

요17:22, HH.68-72

‘천국 각 공동체도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상의 언어로 표현, 기술된 말씀들 또한 천국의 그 무엇을 지상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할 수 없이 가장 근접한 어떤 형용어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천사들처럼 말이지요. 천사들은 우리와 달리 말씀을 그 속뜻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내적(內的, internal) 존재들이기 때문인데, 육을 입고 사는 우리는 사후 이 육을 벗을 때까지는 말씀을 속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사모한 나머지 주님의 빛을 간절히 구하면, 서서히 영안(靈眼), 곧 내적 시야(internal sight)가 열려 우리도 천사들처럼 말씀을 속뜻으로, 처음엔 비록 더듬거리겠지만... 읽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케이나(arcana, 秘義)이며, 250년 전 주님이 스페덴보리를 통해 세상에 여신 것입니다.

말씀은 지상의 삶을 보다 부유하고 운택하게 살기 위한 일종의 무슨 지침서가 아니라, 천국을 가리키는, 천국을 지상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시야가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지상이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아케이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는 저의 초대가 아니라 주님의 초대입니다. 부디 이 초대에 응하셔서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천국 천사들처럼 그 본뜻, 천국 뜻으로, 그 속뜻으로 읽어 지상에서도 천사들처럼 주님과 결합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2-10-02(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